K-뷰티 브랜드, 투자모델 고도화
인수합병·체질개선 '몸집 키우기'

K-뷰티산업 투자가치 조명 받아
자본·유통 결합… 경쟁력 극대화
美·유럽 등 글로벌시장 진출 탄력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하파크리스틴'을 소개하고 있다. /피피비스튜디오스

국내 인디 뷰티 브랜드들이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체급 올리기에 나섰다. 특히 개별 브랜드 수준에 머물던 전략들이 다양한 투자 모델을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사모펀드 주도의 체질 개선, 대형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한 K뷰티 연합군 형성 등이 맞물렸다.

9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케이엘앤파트너스는 뷰티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늘렸다. 최근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피피비스튜디오스' 경영권 지분 약 65%를 1400억원에 최종 인수했다.

피피비스튜디오스는 뷰티렌즈 브랜드 '하파크리스틴'을 보유해 국내외에서 K뷰티 영역을 넓혀 왔다. 이미 2024년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등에서 단독 매장을 운영하며 북미 현지에서 글로벌 소비자 접점을 마련했다. 2025년 말에는 일본 콘택트렌즈 기업 PIA와 총판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진출을 가속화했다. 또 K팝 스타 장원영을 브랜드 모델로 발탁하는 등 브랜드 인지도를 올렸다. 그 결과 피피비스튜디오스 매출은 2023년 392억원, 2024년 490억원, 2025년 589억원으로 매년 성장세에 진입했다. 이와 함께 2025년 영업이익은 54억원으로 2024년 영업손실 42억원에서 흑자 전환했다.

케이엘앤파트너스는 앞서 마녀공장을 통해서도 K뷰티 가치를 극대화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마녀공장 지분 51.87%에 1900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올해 들어 마녀공장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브랜드 재단장을 단행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자연 유래 기능성 성분에 중점을 두되 브랜드 대표 제품군을 클렌징에서 스킨케어로 다각화한다. 또 수익성 개선 가능성을 입증한다는 복안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매출은 2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7% 상승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6.5% 급증했다.

2023년 코스닥에 상장한 마녀공장은 성장통을 겪고 있다. 2023년 매출 1050억원, 영업이익률 15.1%에서 2024년 매출 1279억원, 영업이익률 14.5%로 외형을 키웠으나 2025년에는 매출 1130억원, 영업이익률 9.3%를 기록했다.

구다이글로벌은 글로벌 유통망 공유와 브랜드 자산 보존을 병행하는 유연한 전략으로 K뷰티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구다이글로벌은 각종 뷰티 브랜드를 인수합병해 연매출 1조원대 기업으로 사세를 키워 왔다. 2025년 실적만 연결기준 매출은 1조4718억원, 영업이익은 2734억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매출은 294%, 영업이익은 98% 커진 규모다. K선크림으로 입소문을 탄 조선미녀, 메이크업 브랜드 티르티르, 스킨케어 브랜드 스킨1004, 1세대 로드숍 브랜드 스킨푸드 등이 뒷받침된 성과다.

이처럼 뷰티 사령탑으로 자리매김한 구다이글로벌은 최근에는 투자 방식에서 변화를 보였다. 지난달 29일 스킨케어 브랜드 토리든과 '글로벌 사업 확장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다. 브랜드 합병 대신 소수 지분 투자 방식을 선택했다.

양사는 중장기적 사업 파트너십에 중점을 둔다. 독자적인 성장 동력과 브랜드 정체성이 확고한 토리든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구다이글로벌의 뷰티 플랫폼 역량을 이식한다는 방침이다.

토리든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전년 동기 대비 48% 성장한 1811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 중 해외 매출은 62% 늘어 1127억원이다.

국내 한 뷰티 브랜드 관계자는 "K뷰티 산업에 대한 투자 가치가 집중 조명받고 있는 가운데 브랜드 입장에서는 고유의 경영 체제와 퍼포먼스를 인정받으면서도 해외 판로를 넓힐 수 있는 긍정적인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매출에 의존한 단발성 기회보단 선진 시장을 타깃으로 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기름값 12주 연속 하락 9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가 게시돼 있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첫째 주(2일~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2.9원 내린 1866.2원,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3.6원 내린 1849.2원으로 12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전력기기3사, 북미 공급부족 대응나서
생산시설 확충·수익성 위주 선별수주

최소 5년 이상 전력기기 공급부족 전망

북미 전력기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HD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등 관련 주요 기업들이 늘어나는 수주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현지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전력기기 공급부족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생산능력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북미에서는 대형 변압기와 차단기 수요가 생산능력을 웃돌면서 공급자 우위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주요 전력기기 공급 부족이 앞으로 최소 5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발전소와 송전망에 사용되는 일부 대형 변압기는 발주부터 인도까지 160주 이상 걸리며 품목에 따라 납기가 4년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은 장기간 쌓인 수주 물량을 소화하고 신규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약 2억달러를 투자해 미국 앨라배마 북미 생산법인에 제2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내년 4월 준공되면 현지 초고압 변압기 생산능력은 기존보다 약 50% 확대되며 초고압 송전망 구축에 필요한 765킬로볼트(kV)급 변압기의 시험·생산 설비도 갖추게 된다.

효성중공업은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초고압 변압기 공장에 1억5700만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고 있다. 2028년까지 생산능력을 50% 이상 늘려 멤피스 공장을 미국 최대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생산거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LS일렉트릭은 지난 6월 미국 유타주 시더시티 생산법인 증설에 착수했다. 총 2500억원을 투입해 생산시설을 기존 약 1만3223㎡에서 7만9338㎡로 약 6배 확장한다. 증설이 완료되면 유타 사업장의 배전반 생산능력은 연간 5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제조뿐 아니라 설계와 연구개발 기능까지 갖춘 북미 복합 거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같은 증설에도 북미 전력기기 수요가 생산능력보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공급 부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공장의 가동률이 포화 수준에 이른 가운데 신규 주문이 생산과 매출로 이어지는 속도보다 빠르게 쌓이면서 수주잔고 회전율도 낮아지고 있다.

생산능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업체들은 수익성이 높은 물량을 중심으로 선별 수주에 나서고 있다. 과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확보한 물량이 줄고 최근 수주한 고단가 물량의 매출 인식이 늘어나는 데다 고마진 특대형 변압기의 매출 비중도 확대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SK, 10세대 낸드 맞불… 승부처 '칩 연결'

삼성, 400단 이상 수직적층 제품 선봬
SK, 전력 효율 앞세워… AIDC 정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세대 낸드플래시를 나란히 공개하며 차세대 시장 선점 경쟁에 들어갔다. 적층 단수를 400단대로 끌어올린 데 이어 칩 연결 기술까지 새로운 승부처로 떠오르면서 낸드 경쟁축이 넓어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4~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서 열린 'FMS 2026'에서 10세대 낸드를 처음 공개했다. 인공지능(AI) 시장이 학습에서 추론 중심으로 확대되며 낸드가 AI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400단 이상을 수직 적층한 10세대 V낸드 'V10 BV-낸드'를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전작인 286단 9세대 이후 300단대를 건너뛰고 400단대로 넘어간 제품이다. 셀과 회로를 따로 만들어 접합하는 웨이퍼 본딩과 셀을 세 번에 걸쳐 쌓는 3스택 기술을 적용해 집적도를 9세대 대비 58% 높였다. 양산은 다음 달 시작한다.

SK하이닉스는 전력 효율을 앞세웠다. 이번에 공개한 10세대 375단 4D 낸드는 이전 세대보다 전력 대비 성능을 2.5배 높인 제품으로 AI 데이터센터 환경을 겨냥했다. 회사는 내년 초 이를 기반으로 한 고성능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적층 경쟁과 함께 칩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기술도 나란히 공개됐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3D 메모리 아키텍처 'zNAND-O' 실물모형을 선보였다. V낸드의 수직 적층 기술에 실리콘관통전극(TSV)을 결합해 4단 또는 8단 칩을 3D 패키징하는 구조로 현재 개발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샌디스크와 고대역폭플래시(HBF) 첫 표준 규격을 내놨다. HBF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SSD 사이에 놓이는 새로운 메모리 계층으로 낸드를 패키지 단위로 수직 적층한다. 이번 규격은 낸드 다이를 8단과 16단으로 쌓는 구성을 기준으로 용량을 최대 512기가바이트(GB)까지 정의했다. 프로세서 연결에는 업계 표준인 UCIe를 채택했다. 양사는 지난 2월 표준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이후 구글과 텐스토렌트가 합류했다.

기술 경쟁이 빨라진 배경에는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있다.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공급 부족으로 주문이 낸드로 몰리면서 eSSD 수요가 급증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낸드 계약가격은 1분기 전 분기 대비 85~90% 오른 데 이어 2분기에도 70~75%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기반 확충도 잇따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기 팹 Y2와 충북 청주 낸드 신규 공장 M17에 총 54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기존 후공정 거점은 재편이 검토되고 있다. 충칭 공장은 2014년 7월 양산을 시작해 낸드 조립과 성능 검사를 담당해온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후공정 거점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7일(현지시간) SK하이닉스가 이 공장에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안 등을 자문사들과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분 매각 시 공장 가치는 약 30억달러(약 4조원)로 평가되며 중국계 투자펀드와 현지 반도체 업체가 인수 후보로 거론된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낸드 경쟁이 적층 수를 늘리는 데서 칩을 어떻게 연결하고 집적하느냐로 넓어지고 있다"며 "고객이 요구하는 성능을 맞추려면 셀 구조뿐 아니라 패키지 단계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추석 성수품 수요 증가… 소비자물가 '비상'

›› 1면 '오이 55%, 애호박 47%'서 계속

문제는 농산물 가격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다. 특히 다음달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와 공급 차질이 겹칠 경우 가격 상승폭이 확대될 수 있다. 폭염과 가뭄이 겹친 이례적인 날씨가 물가 불안을 키웠다.

수산물 시장도 불안하다. 수온 상승으로 폐사하는 어류가 늘면서 수산물 가격 역시 상승세다. 양식 수산물의 생산량 감소가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기준 고수온으로 폐사한 양식 어류는 약 86만여 마리에 달한다. 수협 노량진 수산시장에 따르면 7월 5주차 고등어 1kg 도매가는 28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7.4% 올랐고, 갈치와 광어(자연산) 가격도 각각 41.5%, 11.3% 상승했다.

이에 따라 추석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폭염 여파가 과일 등 성수품 수급과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온이 장기화할 경우 과일·채소류의 생육 부진과 출하 감소가 이어질 수 있는 데다, 수산물 역시 고수온에 따른 양식어류 폐사가 확대되면서 공급 불안이 커질 수 있어서다.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 수요까지 늘어날 경우 일부 성수품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농수산물 가격 상승은 폭염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크지만, 추석을 앞두고 공급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소비자물가를 다시 끌어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먹거리 물가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와도 직결되는 만큼 향후 물가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